

Primitive K-Culture Content in Gunwi and Strategies for Developing a Stay-Oriented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Hub : Focusing on the Place Identity and Reorganization of Tourism Routes in the Samjonseokgul, Ingaksa, and Palgongsan Areas

Seo, Bo-young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Korea

rizzy@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how Gunwi-gun is being repositioned as a hub of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within the Daegu metropolitan tourism sphere after its incorporation into Daegu. It interprets Gunwi's Buddhist heritage, Samguk yusa narratives, mountain landscapes, and modern everyday cultural resources as archetypal content connected to K-Culture.

Methods This study analyzes major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in Gunwi, including the Amitabha Buddha Triad Grotto, Ingaksa Temple, Palgongsan Mountain, Hwabon Station, Hwasan Village, and Sayuwon. It also reviews recent tourism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stay-oriented tourism, historic site development, scenic resource designation, city tours, and demand-responsive transport routes.

Conclusions Gunwi's tourism strategy should be understood not as the promotion of separate attractions, but as an integrated regional model that connects history, place identity, accessibility, and stay-oriented tourism. Through this approach, Gunwi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an archetypal space for K-Culture tourism in the Daegu metropolitan region.

Keywords Gunwi-gun; Amitabha Buddha Triad Grotto; Ingaksa Temple; Samguk yusa; Palgongsan Mountain; stay-oriented tourism;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6.6.312.003

Received: May 20, 2026 ; Reviewed: June 10, 2026 ; Accepted: June 30, 2026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군위의 K-컬처 원형 콘텐츠와 역사문화관광의 체류형 거점화 전략

– 삼존석굴 · 인각사 · 팔공산 권역의 장소성과 관광 동선 재구성을 중심으로 –

서보영

차례

1. 서론
2. 군위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위상과 성격
3.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의 방향과 의미
4. 팔공산·시티투어·교통망을 통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
5. 결론: 대구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서 군위의 가능성과 과제

1. 서론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에 편입된 이후 대구권 관광 지형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¹ 이전의 군위는 경북 북부 내륙의 조용한 농촌 지역, 혹은 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둔 주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대구 편입 이후 군위가 보유한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관광 자원은 더 이상 군위 내부의 자산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대구라는 광역도시의 문화적 외연을 넓히고, 대구 관광이 도심형 관광을 넘어 역사·생태·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K-컬처가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중심의 콘텐츠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전통문화, 자연경관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위의 관광 자원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군위가 주목되는 까닭은 단순히 관광지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군위에는 대구 유일의

¹ 군위군과 대구와의 행정구역 통합의 내력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참조. <https://gunwi.go.kr>

국보인 아미타여래삼존석굴, 일연이 『삼국유사』를 완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인각사, 국립공원 팔공산, 근현대 생활문화를 간직한 화본역, 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 촬영지,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 사유원 등 시대와 성격이 다른 자원들이 비교적 밀도 있게 분포한다.² 이들 자원은 불교문화, 고대사, 고려 후기 지성사, 조선시대 충절 서사, 근현대 생활문화, 자연생태 관광을 한 지역 안에서 연결한다.

군위 관광의 가능성은 바로 이 중층성에 있다. 하나의 대표 명소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와 문화적 기억을 하나의 동선 속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위는 K-컬처의 지역적 기반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K-컬처가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완성형 콘텐츠라면, 군위의 역사문화자원은 그 콘텐츠를 낳는 원형 서사와 장소성을 제공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³

특히 군위군이 추진하는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군위 관광의 방향 전환을 잘 보여준다. 기존 관광이 개별 명소를 방문하고 곧바로 이동하는 통과형 관광에 가까웠다면, 최근의 전략은 체험·휴식·캠핑·문화탐방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연공원 정비, 삼국유사 테마로드 조성, 캠핑장과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등은 관광객을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천천히 경험하는 체류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삼국유사』는 단순한 고전 문헌이 아니라 고대 한국의 신화, 설화, 불교문화, 지역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K-서사의 원천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군위의 관광 전략은 고전 지식의 보존을 넘어, K-컬처의 뿌리를 체험 가능한 지역 콘텐츠로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군위군이 보유한 주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분석하고, 군위가 대구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삼존석굴, 인각사, 일연공원, 학소대, 엄홍도 묘소, 팔공산, 군위 시티투어, DRT 관광노선 등이 놓인다. 이 자원들은 각각 별개의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위 관광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호 보완적 요소들이다. 삼존석굴과 인각사가 군위 관광의 역사적 깊이를 담당한다면, 팔공산과 학소대는 자연 경관과 생태적 체험의 기반을 이룬다. 또한 일연공

2 김상화. (2026, 5월 6일). 삼존석굴·팔공산 품은 군위… ‘대구 역사문화관광 1번지’ 뜬다. 서울신문.

3 정두호, 유춘동. (2020). 서울시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레트로(Retro)의 연계. 철학·사상·문화, 33, 109-119.

4 황지현. (2025, 8월 11일). 군위군, ‘삼국유사 체류형 거점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쾌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

원과 삼국유사 관련 콘텐츠는 군위를 단순한 유적 답사지가 아니라 이야기와 체험이 결합된 역사문화 공간으로 확장한다.

논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진행된다. 첫째, 군위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을 살펴본다. 삼존석 굴과 인각사는 각각 국보와 사적이라는 제도적 위상을 지니며, 군위가 대구 역사문화관광의 핵심 권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의 의미를 검토한다. 일연공원 정비와 삼국유사 테마로드,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등은 군위 관광을 가족형·체험형·휴식형 관광으로 넓히는 장치이다. 셋째, 팔공산 야영장, 군위 시티투어, DRT 관광노선 등 교통·자연·체험 인프라가 군위 관광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한다. 결국 군위 관광의 과제는 개별 자원의 우수성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자원들을 하나의 서사와 동선으로 엮어, 군위를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K-컬처의 지역적 원형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2. 군위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위상과 성격

2.1. 대구 편입 이후 군위 관광의 새로운 위상

군위군은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관광 자원의 성격과 밀도를 기준으로 보면, 군위는 대구권 관광 지형 안에서 매우 독자적인 위치를 점한다. 대구 도심이 근대도시의 기억, 상업과 산업의 활력, 생활문화와 공연·축제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닌다면, 군위는 이와 다른 시간과 풍경을 제공한다. 고대 불교문화, 산악 경관, 전통 마을, 역사 인물의 서사, 자연 속 체류와 휴식의 경험이 군위 안에서 하나의 관광 자원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군위는 대구 관광의 외곽이 아니라, 대구가 미처 품지 못했던 역사문화와 생태관광의 깊이를 보완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구 편입은 군위 관광의 의미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편입 이전의 군위가 경북 내륙의 소규모 농촌 지역으로 인식되었다면, 편입 이후의 군위는 대구라는 광역도시의 문화적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관광 권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경을 넘어선다. 군위가 지닌 자원들이 대구 관광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대구 관광은 도심형 관광에서 역사문화·자연생태·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대구 유일의 국보인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이 군위에 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크다. 이것은

군위가 대구 역사문화관광의 변방이 아니라, 오히려 대구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중심 자원임을 보여준다.

K-컬처의 관점에서 보아도 군위의 의미는 작지 않다. 오늘날 K-컬처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처럼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⁵ 그 밑바탕에는 한국의 고전 서사, 불교문화, 지역 설화, 역사 인물, 전통 공간, 자연 경관이 놓여 있다. 군위는 바로 이러한 원형 콘텐츠의 저장소에 가깝다. 인각사와 『삼국유사』의 기억은 한국 고대 신화와 설화, 불교적 상상력의 뿌리를 품고 있으며, 삼존석굴은 한국 불교미술의 깊이를 보여준다. 팔공산과 학소대, 전통 마을과 역사 인물의 흔적은 한국적 장소성과 지역 서사를 체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따라서 군위 관광은 단순한 유적 답사나 자연 관광을 넘어, K-컬처의 기층 서사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군위는 대구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관광 감각을 제공한다. 대구 도심 관광이 근대골목, 쇼핑, 음식, 축제, 공연, 야간문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군위 관광은 석굴사원, 고찰, 산악 경관, 전통 마을, 캠핑과 산책, 조용한 체류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차이는 대구 관광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광객은 대구 도심에서 도시적 활력을 경험한 뒤, 군위에서 역사와 자연,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하루 일정의 보조 코스가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여기에 있다.

결국 대구 편입 이후 군위 관광의 핵심 과제는 개별 관광지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삼존석굴, 인각사, 팔공산, 화본역, 사유원, 김수환 추기경 생가, 삼국유사 관련 자원을 하나의 서사와 동선으로 엮어내야 한다. 군위는 대구 관광의 주변부가 아니라, 대구가 K-컬처의 원형과 지역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축이다.⁶ 대구가 세계적인 도시관광의 무대를 지향한다면, 군위는 그 무대에 깊이와 시간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5 김현주. (2026). 한류 콘텐츠 기반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콘텐츠와산업, 8(2), 311-315.

6 이맹맹, 구수민, 홍창기. (2025). 역사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연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발전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91, 127-143.

2.2. 삼존석굴의 상징성과 국보 자원의 관광적 의미

군위 부계면 남산리에 자리한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은 군위 역사문화관광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 자원이다.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이 석굴은 대구 편입 이후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군위가 대구의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삼존석굴은 ‘군위의 국보’를 넘어 대구가 보유한 유일한 국보라는 상징성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 목록상의 변화가 아니다. 대구 관광이 근대도시, 산업, 상업, 음식, 축제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대 불교문화와 신라 문화권의 깊이를 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삼존석굴은 통일신라 초기 석굴사원의 원형을 간직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석굴사원이라고 하면 경주 석굴암을 먼저 떠올리지만, 군위 삼존석굴은 석굴암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라 불교문화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점에서 삼존석굴은 경주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신라 문화유산의 지형을 대구·군위권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군위의 삼존석굴은 경주의 석굴암을 보조하는 주변 유적이 아니라, 신라 불교미술과 석굴사원의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독자적 문화유산이다.⁷

관광적 측면에서 삼존석굴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보라는 제도적 위상이다. 국보는 관광객에게 명확한 방문 동기를 제공한다. 특히 ‘대구 유일의 국보’라는 표현은 지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부여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군위를 방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준다. 관광에서 상징어는 중요하다. 복잡한 설명 이전에 ‘유일한 국보’라는 말은 강한 인지 효과를 갖는다. 군위 관광 브랜드를 구성할 때 삼존석굴이 가장 앞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고대 석굴사원으로서의 역사적 희소성이다. 삼존석굴은 단순히 오래된 불상이나 사찰 유적이 아니다. 자연 암벽과 신앙 공간, 불교 조각과 산지 지형이 결합된 석굴사원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장소성을 지닌다. 이는 관광객에게 단순 관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석굴 내부의 불상과 구조를 보는 일은 곧 고대인들이 불교적 세계관을 어떤 공간 속에 구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존석굴은 K-컬처의 표층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놓인 불교문화와 고대 서사의 원형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김리나. (2016).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변주. 미술자료, 89, 29-52.

셋째, 팔공산 권역과 연결되는 자연경관의 가치이다. 석굴사원은 독립된 건축물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산의 지형, 숲의 분위기, 접근로의 리듬, 주변 경관과 함께 하나의 장소감을 형성한다. 삼존석굴 역시 팔공산권 자연환경과 결합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난다. 관광객은 단순히 국보 하나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지나 고대 불교의 흔적과 마주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과 체류의 감각은 군위 관광을 단순한 유적 답사에서 역사문화형 생태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만 국보 자원의 관광자원화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소재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 삼존석굴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람객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해설, 품격 있는 안내 체계, 적절한 관람 동선, 문화유산 보호를 고려한 접근성 개선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삼존석굴은 화려한 상업시설이나 과도한 이벤트보다 조용하고 깊이 있는 관람 환경이 어울리는 자원이다. 국보의 품격은 거대한 조형물이나 자극적인 홍보 문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해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비, 지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인각사-팔공산-일연공원 등 주변 자원과의 절제된 연계 속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삼존석굴은 군위 관광의 대표 상징이면서 동시에 군위 관광정책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군위 관광은 단순한 명소 홍보에 머물 수도 있고, 대구권 K-컬처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삼존석굴의 관광적 의미는 결국 ‘국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 국보를 통해 군위가 어떤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상상력을 대구 관광 안에 더할 수 있는가에 있다.

2.3. 인각사와 『삼국유사』 문화권의 형성

인각사는 군위 역사문화관광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다. 군위 관광의 상징이 삼존석굴을 통해 고대 불교미술의 깊이를 보여준다면, 인각사는 『삼국유사』라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국 고대 서사와 불교문화, 지역의 장소성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각사는 고려 후기의 고승 일연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며 『삼국유사』를 완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인각사는 단순한 사찰 유적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곳은 한 승려의

만년 수행처이자, 한국인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기억이 집약된 고전이 완성된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⁸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의 신화, 전설, 불교설화, 향가, 역사 기록을 폭넓게 담고 있는 대표적 고전이다. 이 책에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신라 건국 이야기, 불교 전래와 고승 설화, 신이한 사건과 민간의 기억이 함께 들어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고대의 세계관과 신앙, 지역의 이야기, 민중적 상상력, 불교적 사유가 겹쳐 있는 문화 원천이다.⁹ 오늘날 K-컬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국유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대중문화 콘텐츠라면, 『삼국유사』는 그러한 콘텐츠의 깊은 배후에 놓인 원형 서사이자 상상력의 저장고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각사의 관광자원화는 단순히 사찰을 정비하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각사는 『삼국유사』라는 텍스트와 함께 읽힐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관광객은 인각사에서 절집의 건축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연의 생애, 『삼국유사』의 편찬 과정, 고대 설화와 불교문화, 군위의 산수 경관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각사는 ‘보는 유적’에서 ‘읽고 걷고 상상하는 장소’로 확장되어야 한다.

군위군이 인각사 사적지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이는 관광개발에 앞서 문화유산의 학술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존 사적지 범위를 넓히고,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와 유구,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일은 인각사의 역사적 충위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구들식 기와가마와 같은 희귀 자료의 확인은 인각사 일대가 단기간의 사찰 공간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오랜 시간에 걸쳐 종교 활동, 생산 활동, 생활문화가 함께 이루어진 복합 문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각사 문화권의 형성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유적의 보존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각사의 문화적 위상은 단순한 전설이나 홍보 문구만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발굴 성과, 문헌 자료, 일연 관련 기록, 『삼국유사』의 편찬 배경이 치밀하게 정리될 때 인각사는 학술적 신뢰를 갖춘 관광자원이 된다. 둘째, 그 연구 성과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전문적인 고고학 자료나 문헌학적 논의가 그대로 제시된

8 이종문. (2010).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 부러진 기린의 뿔을 찾아서. 글항아리.

9 일연. (2022).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다면 일반 관광객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일연의 생애 동선, 『삼국유사』 속 주요 이야기, 군위와 관련된 설화, 인각사 발굴 성과를 쉽게 풀어낸 해설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삼국유사’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관광 콘텐츠가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장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인각사에 들어서며 일연이 왜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는지, 『삼국유사』가 어떤 시대적 문제의식 속에서 편찬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신화와 설화가 오늘의 K-컬처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책형 해설 코스, 이야기 지도, 디지털 안내, 어린이용 설화 체험, 향가 낭송 프로그램, 『삼국유사』 속 인물과 사건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등을 구상할 수 있다.

인각사는 군위가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정교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이다. 삼존석굴이 대구 유일의 국보로서 군위의 문화적 품격을 상징한다면, 인각사는 『삼국유사』를 통해 군위가 한국 고대 서사의 원천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각사 관광의 핵심은 사찰 하나를 알리는 데 있지 않다. 인각사를 중심으로 일연, 『삼국유사』, 불교문화, 고대 설화, 군위의 자연경관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어내는 데 있다. 그렇게 될 때 군위는 단순한 유적 답사지가 아니라, K-컬처의 뿌리와 한국적 서사의 원형을 체험하는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의 방향과 의미

3.1. 일연공원과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사업

군위군이 추진하는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군위 관광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업은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일대에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삼국유사 테마로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의미를 단순히 노후 공원을 정비하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일연공원을 군위 관광의 독립된 한 지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각사·군위담·삼국유사 테마파크·화본역·화산산성·김수환 추기경 생가 등 주변 자원과 연결하여 군위 전체의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체류형 관광은 오늘날 지역 관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관광객이 특정

명소를 짧게 둘러보고 곧바로 떠나는 구조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숙박, 식사, 체험, 이동, 재방문이 결합되면 관광은 지역 상권, 농특산물 판매, 문화행사, 청년 창업, 마을 공동체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¹⁰ 군위가 캠핑장과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이유도 이 지점에서 이해된다. 역사문화자원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젊은 세대의 체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역사와 휴식, 교육과 놀이, 관람과 체험이 함께 설계될 때 관광은 일회적 방문을 넘어 지속적인 체류 경험으로 확장된다.

일연공원은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은 일연이라는 인물, 『삼국유사』라는 텍스트, 인각사라는 장소, 군위담과 자연경관, 주변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연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군위 관광 서사의 출발점이자 중간 기착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군위의 역사문화 지도를 먼저 이해하고, 이후 인각사와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역, 화산산성 등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일연공원은 관광객에게 “군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해설의 입구가 되어야 한다.

K-컬처의 관점에서 일연공원의 의미는 작지 않다. 오늘날 K-컬처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음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한국 고유의 신화, 설화, 불교문화, 역사 인물, 지역의 장소성이 놓여 있다. 『삼국유사』는 이러한 K-컬처의 원형 서사를 가장 풍부하게 품고 있는 고전 가운데 하나이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신라 건국 설화, 불교 전래 이야기, 향가와 고승 설화는 현대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강한 서사적 잠재력을 지닌다. 일연공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걷고 듣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군위는 K-컬처의 뿌리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마로드 조성의 방향도 세심해야 한다. ‘삼국유사’라는 이름을 붙인 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일연의 생애를 설명하고, 어느 지점에서 『삼국유사』 속 설화를 들려주며, 어느 장소에서 군위의 자연경관과 고전 서사를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위한 설화 놀이 공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 청년층을 겨냥한 야간 경관 콘텐츠, 외국인

10 엄기복, 이명훈. (2025). 체류형 관광도시의 지속 관계 형성의 중요 요인의 실증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11(3), 101-126.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해설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연공원은 단순한 공원 정비 사업을 넘어 군위형 K-컬처 관광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체류형 관광거점 사업은 주변 마을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캠핑장과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장치라면, 그 방문객이 지역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카페, 숙박시설, 체험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공원 안에서만 머물다 떠난다면 지역 파급효과는 제한된다. 반대로 일연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군위 관광은 단일 명소 방문에서 권역형 체류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의 성패는 시설의 규모보다 서사의 밀도와 동선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일연공원은 군위 관광의 중심을 새롭게 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의 이야기, 인각사의 역사성, 군위의 자연경관, 가족형 체험시설, 지역 상권이 서로 맞물릴 때 이 사업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군위가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연공원을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K-컬처의 원형 서사와 지역 체류형 관광이 만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3.2. 인각사 사적지 확대와 학소대 명승화 전략

군위군이 인각사와 학소대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군위 관광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유적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내려는 시도이다. 인각사가 일연의 만년과 『삼국유사』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면, 학소대는 자연경관과 시문학적 정취, 지역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이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지만, 함께 놓일 때 군위 관광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장한다.

학소대는 과거 백학이 깃들었다고 전해지는 장소로, 이름 자체에 이미 자연과 상상의 흔적이 담겨 있다. 또한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산수를 즐기고 시를 읊었다는 전승은 학소대가 단순한 절경이 아니라 문화적 감상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연경관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곳을 바라본 사람들의 말과 글, 기억이 더해질 때 문화적 경관으로 바뀐다. 학소대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상과 문학적 상상력이 머물렀던 공간이다.¹¹

명승 지정은 관광지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명승은 자연미

와 역사성, 예술적 가치, 생활문화적 기억 등을 지닌 장소를 국가가 지정·보호하는 문화유산 유형이다. 따라서 인각사와 학소대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이 일대가 단순한 사찰 주변 경관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 문학과 신앙이 겹쳐 있는 복합 문화경관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군위 관광의 성격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군위 관광이 삼존석굴이나 인각사처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승화 전략은 관광의 범위를 주변 산수와 길, 계곡, 조망 지점까지 넓힌다.

이러한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유산 관광이 특정 건축물이나 유물 앞에서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방식에 머물면 체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관형 관광은 다르다. 방문객은 길을 걷고, 풍경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그 장소에 축적된 이야기를 천천히 받아들인다. 인각사와 학소대가 함께 연결될 경우, 관광객은 『삼국유사』의 편찬 공간을 둘러본 뒤 그 주변의 자연경관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찰의 역사성과 계곡의 경관, 일연의 삶과 시문학적 정취가 하나의 동선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K-컬처의 관점에서도 이 전략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 K-컬처는 완성된 콘텐츠의 소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콘텐츠를 낳은 장소와 원형 서사, 자연과 정신문화의 기반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 신화와 불교설화, 향가와 지역 서사를 담은 K-서사의 원천이고, 인각사는 그 텍스트가 완성된 장소이다. 여기에 학소대의 자연경관이 결합되면 군위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가 아니라, 한국적 이야기와 산수 미학을 동시에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각사와 학소대의 명승화는 K-컬처의 뿌리를 ‘읽는 관광’에서 ‘걷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승화 전략은 군위 관광의 계절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캠핑장이나 물놀이장 중심 관광은 여름철이나 특정 휴가철에 집중되기 쉽다. 반면 명승형 관광은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봄에는 산사 주변의 꽃과 신록, 여름에는 계곡과 숲, 가을에는 단풍과 인문기행, 겨울에는 고요한 산사와 설경이 관광 자원이 된다. 이러한 계절별 경관 변화는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관광지가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표정으로 다시 찾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승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 명승 지정은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보호의 책임을 동반한다.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 조망 공간 조성, 사진

11 마창훈. (2022, 11월 18일). [군위 가볼만한 곳] 의상대사 정신 깃든 ‘군위 인각사’...학소대와 함께 만추 경관 자랑. 영남일보.

촬영 지점 개발 등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관의 본래 분위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소대와 같은 자연경관 자원은 과도한 시설물보다 절제된 안내와 품격 있는 해설이 더 중요하다. 방문객이 자연의 고요함과 역사적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하고, 인각사와 학소대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인각사 사적지 확대와 학소대 명승화 전략은 군위 관광을 점에서 면으로, 유적 답사에서 경관 체험으로, 단기 방문에서 체류형 인문관광으로 바꾸는 핵심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각사가 『삼국유사』의 정신적 중심이라면, 학소대는 그 정신이 머무는 산수의 배경이다. 두 공간이 하나의 문화경관으로 묶일 때 군위는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K-컬처의 원형 서사와 한국적 자연미를 함께 보여주는 품격 있는 관광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3.3. 엄흥도 충절 서사의 역사문화자원화

군위군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방향은 엄흥도(嚴興道) 관련 유적의 역사 문화 자원화이다. 엄흥도는 조선 전기 단종(端宗)의 시신을 수습한 충절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¹² 단종이 영월에서 죽음을 맞은 뒤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조선 후기 이후 충절 담론 속에서 강한 상징성을 지녀 왔다. 이러한 서사는 단순한 개인의 선행담을 넘어,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의리를 지킨 인물의 이야기로 기억되어 왔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2026)>가 흥행하면서 엄흥도가 다시 주목받고, 군위군의 산성면 화본리에 있는 충의공 엄흥도 묘소의 진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묘소가 실제 묘소로 확정될 경우, 국가 지정 문화유산 등록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접근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타당하다. 역사 인물 관련 관광자원은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만, 동시에 사실성의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쉽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특히 묘소, 생가, 유허지, 집터와 같은 인물 유적은 장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엄흥도 묘소의 진위 확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군위 관광 서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엄흥도 서사가 군위 관광에 더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군위의 대표 역사문화자원

12 엄기원. (2002). 단종과 엄흥도. 한국독서지도회.

은 삼존석굴과 인각사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존석굴은 고대 불교미술의 깊이를 보여주고, 인각사는 일연과 『삼국유사』를 통해 고려 후기 지성사와 고대 서사의 기억을 환기한다. 이 두 자원이 군위 관광의 역사적 품격을 형성한다면, 엄홍도 서사는 여기에 조선시대 충절의 윤리와 역사 인물의 서사를 더한다. 그 결과 군위 관광은 고대 불교문화와 고려의 지성사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시대 정치사와 충의의 기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특히 엄홍도 서사는 오늘날 K-컬처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역사 인물과 고전 서사는 영화, 드라마, 웹툰, 공연, 지역축제의 원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단종 서사는 이미 비극적 왕위 계승, 권력 투쟁, 충신과 의리, 억울한 죽음이라는 강한 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¹³ 여기에 엄홍도의 이야기가 결합하면, 영웅적 군주나 권력자의 서사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죽은 왕의 마지막을 지킨 인물의 윤리적 선택이 부각된다. 이는 거대한 정치사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과 결단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감수성과도 잘 맞는다.

다만 엄홍도 서사의 관광자원화는 지나친 영웅화나 단순한 충절 미담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절은 과거의 도덕 규범으로만 제시될 경우 오늘의 관광객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오히려 엄홍도의 이야기는 “권력이 두려워 모두가 침묵하던 순간, 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엄홍도 서사는 낡은 충신담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용기, 역사적 기억의 윤리를 묻는 콘텐츠가 된다.

군위군이 엄홍도 묘소의 진묘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진묘로 확정된다면 다음 단계는 문화유산 지정, 주변 정비, 해설 콘텐츠 개발, 추모 공간 조성, 청소년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묘소만 단독으로 홍보하기보다, 단종 서사와 엄홍도의 행적, 조선 전기 정치사의 배경, 후대의 충절 담론을 함께 설명하는 입체적 해설이 필요하다. 그래야 방문객은 단순히 묘소를 참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소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엄홍도 서사는 군위의 기존 관광 동선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 산성면 화본리 일대는 화본역과 화본마을을 중심으로 이미 군위 시티투어의 주요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본역은 근대 철도마을의 정취를 간직한 관광지이고, 화본마을은 생활문화와 농촌 경관이 어우러

13 김신정. (2021).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 설화 연구: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5, 79-110.

진 공간이다.¹⁴ 여기에 엄홍도 묘소와 집터 추정지를 결합하면, 근대 철도문화와 전통 마을, 조선시대 역사 인물 유적이 하나의 코스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이는 군위 관광의 시간적 층위를 더욱 두껍게 만든다.

더 나아가 엄홍도 관련 자원은 영월의 단종 유적, 청령포, 장릉 등과 연계한 광역 역사 루트로도 확장될 수 있다. 단종의 죽음과 엄홍도의 충절은 영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기억이 얹힌 역사 서사이다. 군위가 엄홍도 묘소를 중심으로 이 서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구권 관광은 조선시대 충절 인물 탐방이라는 새로운 축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엄홍도 충절 서사의 역사문화자원화는 군위 관광의 시대적 폭과 서사적 깊이를 넓히는 작업이다. 삼존석굴이 불교미술의 품격을, 인각사가 『삼국유사』의 원형 서사를, 학소대가 자연과 문학의 경관을 보여준다면, 엄홍도는 조선시대 충의와 인간적 결단의 기억을 군위 관광 안에 더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원을 성급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증과 해설, 교육과 관광 동선을 차례로 갖추어 신뢰도 높은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일이다. 그럴 때 엄홍도 서사는 군위가 가진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4. 팔공산·시티투어·교통망을 통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

4.1 팔공산 국립공원과 자연친화형 관광 기반

군위 관광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팔공산이다. 팔공산은 대구와 경북을 잇는 대표적인 산악 자원으로, 오랫동안 불교문화와 산악신앙, 자연휴양의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대구 도심이 도시적 활력과 생활문화, 근대문화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닌다면, 팔공산 권역의 군위는 산과 계곡, 숲과 야영, 고찰과 경관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가 대구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위는 대구 안에서 가장 넓고 깊은 자연의 감각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¹⁵

부계면 동산리 일대에 조성되는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야영 데크,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숲속 놀이터, 계곡 물놀이장 등이

¹⁴ 이송이. (2019). 기차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 군위 화본역과 화본마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¹⁵ 정만진. (2025).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자연유산 답사여행: 빼앗긴 고향 28. 국토.

마련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숙박시설 조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팔공산의 자연환경을 체류형 관광의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관광객이 잠시 산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머물고 계곡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하루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팔공산 숲속 야영장은 군위 관광의 체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다. 산악 경관과 계곡, 소나무 군락지, 해발 600m 안팎의 쾌적한 환경은 도시민에게 강한 휴식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대구 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전혀 다른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군위 관광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도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먼 곳의 낯선 자연만 이 아니다. 일상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가까운 자연,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식의 장소가 필요하다. 팔공산 권역의 군위는 바로 이러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다.

K-컬처의 관점에서도 팔공산의 의미는 새롭게 읽힐 수 있다. 오늘날 K-컬처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음식과 같은 완성형 콘텐츠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한국적 생활감, 자연을 대하는 태도, 산사와 숲의 정서,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감각이 놓여 있다. 팔공산 숲속 야영장은 이러한 한국적 자연 체험을 관광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산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사찰과 숲길, 계곡과 야영, 지역 음식과 휴식이 결합된 생활문화의 현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팔공산은 군위가 K-컬처의 자연적 기반을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일연공원 일대가 일연과 『삼국유사』, 인각사와 고대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형 체류 관광을 지향한다면, 팔공산 숲속 야영장은 자연휴양형 체류 관광을 담당한다. 두 권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경우 군위 관광은 한층 입체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낮에는 인각사와 삼존석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팔공산 숲속 야영장에서 머무는 방식의 1박 2일 코스가 가능하다. 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놀이장과 숲속 놀이터를 이용하고, 다음 날 화본역이나 김수환 추기경 생가, 사유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팔공산 자연 휴양 기반은 군위 관광을 하루 방문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이 지역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숙박, 식사, 농특산물 구매, 체험 프로그램 참여, 주변 관광지 방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야영장과 캠핑장은 가족 관광, 청년층 소규모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계절형 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하기 쉽다. 군위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팔공산

권역은 단순한 자연경관지가 아니라 생활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동시에 담당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자연 친화형 관광 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개발의 속도보다 보존의 원칙이 앞서야 한다. 팔공산의 가치는 시설의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숲의 고요함, 계곡의 흐름, 산길의 리듬, 계절의 변화가 팔공산 관광의 본질이다. 따라서 야영장과 편의시설은 자연경관을 압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탐방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소음, 계곡 훼손, 주차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자연휴양 관광은 편의성과 생태적 절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

결국 팔공산 국립공원과 숲속 야영장 조성은 군위 관광의 자연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삼존석굴과 인각사가 군위의 역사적 깊이를 보여준다면, 팔공산은 군위의 자연적 품격과 휴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군위는 대구권 관광 안에서 고대 불교문화, 『삼국유사』의 원형 서사, 산악 경관과 자연휴양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군위 관광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균형, 곧 역사와 자연, 체험과 휴식, K-컬처의 원형과 생활문화의 감각을 함께 엮어내는 데 있다.

4.2. 군위 시티투어의 코스 구성과 관광 동선

군위군은 분산된 관광자원을 하나의 이동 경험으로 묶기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코스는 군위역에서 출발해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마을, 충의공 엄홍도 묘소, 삼존석굴, 해원의 집을 거쳐 다시 군위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코스는 군위 관광의 핵심 자원을 비교적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원형 서사, 근대 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화본마을, 조선시대 충절 인물인 엄홍도, 대구 유일의 국보인 삼존석굴, 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의 촬영지라는 대중문화적 기억이 하나의 동선 안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본코스는 군위가 단순한 자연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서사·문화콘텐츠가 중첩된 공간임을 보여주는 입문형 코스라 할 수 있다.¹⁶

파크골프 A·B코스는 군위 관광의 수요층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파크골프는 고령층과 생활체육 관광객에게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이며, 관광과 여가, 건강 활동을 함께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위역과 파크골프장, 화산마을, 사라온이야기마을, 군위전통시장,

16 대구광역시관광협회. (2025). 군위시티투어.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김수환 추기경 공원 등을 잇는 구성은 생활형 관광과 지역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특히 화산마을은 해발 700m 안팎의 청정 고지대라는 점, 군위호와 화산폭력단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의 명소로 기능할 수 있다.

특별코스는 한밤마을과 사유원을 중심으로 군위 관광의 또 다른 결을 보여준다. 한밤마을이 전통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생활문화의 흔적을 제공한다면, 사유원은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된 대규모 수목원으로서 정원문화와 자연 미학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코스는 군위 관광이 대중형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조용한 휴식과 산책, 미감의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시티투어의 가장 큰 장점은 군위 관광자원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다는 약점을 보완한다는 데 있다. 자가용이 없는 방문객이나 외지 관광객에게 군위의 개별 명소는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티투어는 이러한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군위 관광의 기본 동선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코스별 해설의 깊이, 관광지별 체류 시간,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연계, 계절별 변형 코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K-컬처의 관점에서 『삼국유사』, 국보, 충절 서사, 정원문화, 영화 촬영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다면, 군위 시티투어는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군위형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이동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4.3. DRT 관광노선과 대구권 접근성의 확대

군위 관광의 향후 성패는 접근성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뛰어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그곳에 편리하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방문 수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위처럼 면적이 넓고 관광자원이 여러 읍면에 분산된 지역에서는 교통망이 곧 관광 경쟁력이다. 삼존석굴, 인각사, 한밤마을, 사유원, 화본마을, 삼국유사테마파크가 각각 매력적인 자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연결하는 이동 체계가 부족하면 관광객은 특정 장소 한두 곳만 방문하고 돌아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군위군이 대구교통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DRT 방식의 관광노선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군위 관광권역을 새롭게 조직하는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⁷

DRT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행되는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수요와 이동 패턴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될

17 장성현. (2026, 4월 27일). 대구 군위군 관광지에 DRT 달린다...‘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선정. 매일신문.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형 관광지나 산간 관광지에 적합하다. 군위의 경우 주요 관광지가 넓게 흩어져 있어 자가용이 없는 방문객에게는 이동 부담이 컸다. DRT 관광노선이 도입되면 이러한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군위 관광을 ‘자가용 관광’ 중심에서 ‘대중교통 연계형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계획된 노선은 동대구역과 군위를 연결하면서 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 한밤마을, 부계면 창평리, 사유원, 군위역,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마을 등을 잇는 방식으로 구상된다. 이 노선의 의미는 분명하다. 군위의 개별 관광지를 대구 교통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군위 관광은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다소 떨어진 공간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관광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군위는 대구 여행의 자연스러운 확장 코스가 될 수 있다. 대구 도심 관광을 마친 방문객이 다음 일정으로 군위의 국보, 전통마을, 정원, 산악 경관을 경험하는 동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동대구역은 대구권의 대표 교통 거점이다. KTX, SRT, 고속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가 집중되는 이곳은 외부 관광객이 대구에 진입하는 핵심 관문이다. 동대구역과 군위를 연결하는 DRT 관광노선은 군위 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부산·울산·경남권에서 대구로 들어온 관광객이 별도의 복잡한 환승 없이 군위로 이동할 수 있다면, 군위는 당일형 근교 관광뿐 아니라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로도 편입될 수 있다. 이는 대구 관광의 범위를 도심에서 역사문화·자연생태 권역으로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

K-컬처의 관점에서도 접근성 확대는 중요하다. 군위가 보유한 『삼국유사』, 삼존석굴, 인간사, 한밤마을, 사유원 등의 자원은 한국 문화의 원형 서사와 자연미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세계적 관광 콘텐츠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쉽게 갈 수 있어야 하고, 이동 과정에서 이야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 장소가 하나의 서사적 동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DRT 관광노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군위형 K-컬처 관광의 실질적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관광객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도심에서 출발해 한국 고대 서사, 불교문화, 전통마을, 정원문화, 자연경관을 차례로 경험하는 여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통망의 변화는 TK신공항, 중앙선 복선전철, 군위역 신설과도 연결된다. 군위군이 약 1400만 명 규모의 배후시장을 2시간 거리 안에 둘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광역 교통 인프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관광에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교통은 관광권역을 재편하고, 방문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지역의 경제적 반경을 넓히는 장치이다. 군위의 경우 교통망 확충은 지리적 한계를 줄이고, 대구·경북권뿐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¹⁸

다만 DRT 관광노선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선 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광지별 체류 시간, 해설 서비스, 예약 시스템, 외국어 안내,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연계, 숙박 정보 제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은 관광의 시작일 뿐이다. 이동 이후 무엇을 보고, 어디서 쉬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가 관광 만족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군위의 DRT 관광노선은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군위 관광의 서사를 실어 나르는 이동형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군위는 대구권 관광의 주변부가 아니라, 대구의 K-컬처 원형과 자연친화형 관광을 확장하는 핵심 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 결론: 대구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서 군위의 가능성과 과제

군위군은 대구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 유일의 국보인 삼존석굴은 군위 관광의 상징적 자원이며, 인각사는 일연과 『삼국유사』의 기억을 통해 한국 문화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일연공원 일대의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군위의 역사문화자원을 가족형·휴식형·체험형 관광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학소대의 명승화, 인각사 사적지 확대, 엄홍도 충절 서사의 관광자원화는 군위 관광의 서사를 한층 두텁게 만든다. 군위는 고대 불교문화, 고려 후기 지성사, 조선시대 충절 담론, 근현대 생활문화, 자연휴양의 층위가 한 지역 안에 공존하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팔공산 숲속 야영장, 군위 시티투어, DRT 관광노선은 이러한 자원들을 실제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기반이다. 관광자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흩어져 있다면 방문객은 그 가치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군위 관광의 핵심 과제는 개별 명소의 홍보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삼존석굴, 인각사, 일연공원,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마을, 화산마을, 사유원, 팔공산 야영장 등을 하나의 서사와 동선 속에 배치하는 일이다. 각각의 장소가 따로 존재할 때 관광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이 서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엮일 때 군위는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대표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18 지해명. (2009). 교통망 개설의 지역간 인구이동효과 추정방법론: IRIO-HT(Harris & Todaro) 모형정립 및 수도권-강원권 사례분석. 지역연구, 25(2), 47-62.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군위 관광의 중심 서사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군위에는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성이 곧바로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자원의 성격과 관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관광객에게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삼존석굴은 고대 불교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원으로, 인각사는 『삼국유사』와 일연의 지적·불교적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학소대는 자연경관과 시문학적 정취가 결합된 장소로, 엄홍도 묘소는 충절과 역사 인물 서사의 거점으로, 팔공산은 자연휴양과 생태 체류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를 다시 ‘대구권 K-컬처 원형을 체험하는 역사문화관광지’라는 큰 이야기 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개발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보와 사적, 명승 후보지는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관람 동선 관리, 해설 체계 정비, 주변 경관 보존, 발굴 성과 공개, 지역민 참여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삼존석굴과 인각사의 품격은 화려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설과 조용한 관람 환경,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운영 방식에서 나온다.

체류형 관광의 실질적 콘텐츠도 강화되어야 한다.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와 같은 시설은 관광객을 머물게 하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만으로 체류형 관광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야간 프로그램, 인문해설 투어, 『삼국유사』 이야기 체험, 사찰문화 프로그램, 지역 음식, 농산물 체험, 전통시장 연계, 계절별 축제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단지 편의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풍경, 음식, 사람,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구권 관광과의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 군위는 대구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대구 관광의 중심 코스로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동대구역과 연결되는 DRT 노선, 군위 역 중심 시티투어, TK신공항과의 접근성, 대구 도심 관광과 군위 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다. 대구 근대골목, 팔공산, 군위 삼존석굴, 인각사, 사유원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군위는 대구 외곽의 별도 관광지가 아니라, 대구 관광의 깊이와 반경을 넓히는 핵심 권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군위 관광의 미래는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라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화와 자연휴양을 하나의 체류형 관광권역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군위는 삼존석굴이라는 국보, 인각사라는 고전의 장소, 팔공산이라는 자연 자원, 화본마을과 사유원 같은 감성적 관광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지역이다. 이 자원들을 서둘러 소비하기보다, 각각의 성격

을 존중하면서 섬세하게 연결한다면 군위는 대구의 외곽 관광지가 아니라 대구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고대 서사와 불교문화, 자연미학과 지역 생활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K-컬처의 지역적 원형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References]

- 김리나. (2016).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변주. 미술자료, 89, 29-52.
- 김상화. (2026, 5월 6일). 삼존석굴·팔공산 품은 군위...‘대구 역사문화관광 1번지’ 뜬다. 서울신문.
- 김신정. (2021).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설화 연구: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55, 79-110.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2025, 8월 18일). 군위시티투어.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마창훈. (2022, 11월 18일). [군위 가볼만한 곳] 의상대사 정신 깃든 ‘군위 인각사’...학소대와 함께 만추 경관 자랑. 영남일보.
- 엄기복, 이명훈. (2025). 체류형 관광도시의 지속 관계 형성의 중요요인의 실증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11(3), 101-126.
- 엄기원. (2002). 단종과 엄홍도. 한국독서지도회.
- 이맹맹, 구수민, 홍창기. (2025). 역사·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연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발전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91, 127-143.
- 이승이. (2019, 2월). 기차 타고 떠나는 겨울여행, 군위 화본역과 화본마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 이종문. (2010).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 부러진 기린의 뿔을 찾아서. 글항아리.
- 일연. (2022).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 장성현. (2026, 4월 27일). 대구 군위군 관광지에 DRT 달린다...‘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 선정. 매일신문.
- 정만진. (2025).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자연유산 답사여행: 빼앗긴고향 28. 국토.
- 지해명. (2009). 교통망 개설의 지역간 인구이동효과 추정방법론: IRIO-HT(Harris & Todaro) 모형정립 및 수도권-강원권 사례분석. 지역연구, 25(2), 47-62.
- 황지현. (2025, 8월 11일). 군위군, ‘삼국유사 체류형 거점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쾌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Ri-na. (2016). Variations of Buddhist sculpture in Korea's Three Kingdoms period within the flow of ancient East Asian Buddhist sculpture. Art Research Materials, 89, 29-52.
- Kim, Sang-hwa. (2026, May 6). Gunwi, home to Samjonseokgul and Palgongsan Mountain, emerges as Daegu's leading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Seoul Shinmun.
- Kim, Shin-jeong. (2021). A study on tales related to King Danjong's exile as cultural memory: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Oral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Classical Studies, 55, 79-110.

- Daegu Tourism Association. (2025, August 18). Gunwi City Tour. Daegu Tourism Association.
- Ma, Chang-hoon. (2022, November 18). Gunwi travel destination: Ingaksa Temple, imbued with the spirit of Uisang, and Hakso-dae showcasing late-autumn scenery. Yeongnam Ilbo.
- Eom, Gi-bok, & Lee, Myung-hoon. (2025). An empirical study on key factors in forming sustainable relationships in stay-oriented tourism cities: Focusing on Gangwon Province. *Urban Regeneration*, 11(3), 101-126.
- Eom, Gi-won. (2002). King Danjong and Eom Heung-do. Korea Reading Guidance Association.
- Li, Mengmeng, Koo, Soo-min, & Hong, Chang-ki. (2025). A study o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historical, cultural, and tourism storytelling: Focusing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Samgukyusa-myeon, Gunwi-gun.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91, 127-143.
- Lee, Song-i. (2019, February). A winter train journey to Hwabon Station and Hwabon Village in Gunwi. *Imagine Your Korea*. Korea Tourism Organization.
- Lee, Jong-moon. (2010). Ingaksa Temple, the birth of Samguk yusa: Searching for the broken horn of the kirin. Geulhangari.
- Ilyeon. (2022). *Samguk yusa* (Won-jung Kim, Trans.). Minumsa.
- Jang, Seong-hyun. (2026, April 27). DRT to operate at tourist destinations in Gunwi-gun, Daegu: Selected for the tourism transportation promotion area project. *Maeil Shinmun*.
- Jeong, Man-jin. (2025). A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ield trip to Palgongsan Mountain in Daegu: Lost hometown 28. *Gukto*.
- Ji, Hae-myung. (2009).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interregional migration effects of transportation network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the IRIO-HT (Harris & Todaro) model and a case analysi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5(2), 47-62.
- Hwang, Ji-hyun. (2025, August 11). Gunwi-gun selected for the Ministry of Land's Samguk yusa stay-oriented tourism hub development project. *Daily Daegu-Gyeongbuk News*.

군위의 K-컬처 원형 콘텐츠와 역사문화관광의 체류형 거점화 전략 - 삼존석굴·인각사·팔공산 권역의 장소성과 관광 동선 재구성을 중심으로

서보영(Seo, Bo-young)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대구 편입 이후 군위군이 대구권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배치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삼존석굴, 인각사, 팔공산 권역을 중심으로 군위의 불교문화, 『삼국유사』 서사, 산악 경관, 근현대 생활문화 자원이 K-컬처의 원형 콘텐츠로 기능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 군위군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정책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미타여래삼존석굴, 인각사, 팔공산, 화본역, 화산마을, 사유원 등의 장소성을 검토하고,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사업’, 인각사 사적지 확대, 학소대 명승화, 팔공산 숲속 야영장, 시티투어와 DRT 관광노선 운영 등을 권역형 관광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 군위의 역사문화관광 전략은 개별 명소 홍보에 그치지 않고, 역사성·장소성·체류성·접근성을 결합한 관광 동선 재구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삼존석굴과 인각사, 팔공산 권역은 고대 불교문화와 『삼국유사』의 서사, 자연 경관, 체류형 관광 기반을 함께 갖춘 공간이다. 따라서 군위는 대구권 K-컬처 관광의 원형 공간이자 역사문화관광의 체류형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다.

핵심어 군위군, 삼존석굴, 인각사, 삼국유사, 팔공산, 체류형 관광, 역사문화관광

이 논문은 2026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5월 25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6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